MZ 스님들에게 듣는 동진출가 이야기

화엄사, 10월 21일 '화야몽' 성료
야간 개방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
연성 · 연우 스님과 차담하며 소통
솔직 생생한 출가담에 대중들 공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연성 · 연우 스님은 '동진출가 이야기를 듣는다' 라는 주제로 차담을 진행했다.

최근 야간 개방행사와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화엄사가 올해 마지막 야간 개방행사인 '화야몽' 을 개최했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10월 20일 경내 보제루와 구층암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화야몽 행사를 통해 화엄사 대표 MZ세대 스님인 연성 스님(화엄사빛고을포교원 주지)과 연우 스님(화엄사 원주)스님이 참여한 차담과 소원지 달기, 사찰 탐방을 진행했다.

보제루에서 진행된 차담은 '동진출가 이야기를 듣는다' 라는 주제로 두 스님의 어린 시절 출가 이야기와 수행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첫 번째 대담자로 나선 연성 스님은 "출가에 후회는 없고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단언하며 "제가 13세 살 쯤,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모질게 키울 수 없어, 모질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서 키우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즈음 어느 비구니 스님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찰에 가면 백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친한 친구와 출가한 지 5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너무 부럽다' 고 이야기 했다"며 출가 이후 바뀐 삶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화엄사 원주 연우 스님은 "7살에 절에 처음 왔는데 이틀이 지난 후 절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게 됐다"며 남다른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성인이 돼 정식 출가를 하기는 싫었다. 하지만 당시 불교책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매력에 빠지게 됐다. 2500년 동안 이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고 싶다"며 참가자들에게 '베품' 을 통해 행복을 강조했다.

연우 스님은 신도들이 질문한 윤회, 신행 생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참가자가 최근 MZ세대에 출가자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연우 스님은 "요즘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이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향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종교에 대해 생각이 깊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연성 스님은 이에 대해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의지처가 돼 줄 수 있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마음이 힘들 때 보험을 들듯이 종교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이날 두 스님의 대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보리수 잎에 소원을 작성하고, 사찰 탐방과 구층암, 사사자삼층석탑 등을 참배하며 각자의 소원을 기원했다.

화엄사는 올해 야간 사찰 개방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화엄사 측은 "내년 행사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겠다" 고 전했다.

"분별과 차별 넘어 보살행을"

금산사, 10월 21일 개산 1424주년 법회 봉행

미륵십선계 수계로 신심 고취
음악회 등 기념 문화행사 다채



금산사가 개산 1424주년을 맞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금빛인생 음악회 모습.

백제 법왕원년(599년) 백제왕실의 자복 사찰로 창건된 미륵신앙 성지 모악산 금산사가 개산 1424주년을 맞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10월 21일 금산사 개산 1424주년을 맞아 분별과 차별에 찌든 중생들의 무명을 거두고 능히 자비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금산사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개산대재는 제17교구 비구니 스님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개산대법회, 미륵십선계 수계식, 문화체험, 금빛인생 음악회, 만등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산대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주지 일원 스님,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한광수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창건 이래 역대 조사스님들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력하셨던 위법망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의 계승을 다짐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개산 1424주년을 맞아 오늘 법석은 불보살과 역대조사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한발 더 전진하겠다는 발원의 자리" 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연기(緣起)의 세계임을 인식하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존(共存)과 공생(共生)을 통해 인류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통을 해소해 나가야 함을 이번 개산대재를 통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킨다고 번역할 수 있다" 며 "인간은 존재 그 자체와 삶에서 비롯되는 고의 문제를 극복하고 열반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운문선사는 일일시호일이라 했다"며 "금산사 개산대재를 맞아 상에 머물지 말고 반야지혜로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일미의 세상임을 바로알기 바란다"고 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룡이 나르샤' 호국불교 기치 올리다

함안 마애사 '호국청룡상 · 윤회탑' 조성불사 회향

동양 최대 호국청룡상 조성
생사 해탈상징 윤회탑 점안


고생해 준 대덕스님과 불자 지역관계자 분들의 동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함안 마애사(주지 성주)가 '호국 청룡과 윤회의 탑' 조성 불사 회향 기념 점안법회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21일 새롭게 조성한 청룡상과 윤회의 탑 앞에서 봉행된 점안법회 및 산사음악회에는 마애사 회주 무진 스님, 마애사 주지 성주 스님, 불국사 선원장 종우 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조근제 함안군수, 김두관 국회의원, 김승오 함안교육장, 조영제 경남도의원, 안한진 신도회장, 조용찬 함안불교신도회장 등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청룡상은 마애사 경내 대형 바위에 조성한 것으로 길이 38m, 폭 16m 크기로, 국태민안과 호국을 발원하며 5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완공됐다. 함께 조성된 윤회의 탑은 영혼의 안식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애사 주지 성주 스님은 "청룡과 윤회의 탑에 서린 공덕의 기운이 방어산 자락 마애사에 깃들어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서 앞으로 마애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애사 회주 무진 스님은 "호국청룡과 윤회의 탑이 완성되기까지 5년여 동안 고생해 준 대덕스님과 불자 지역관계자 분들의 동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 산사음악회에서는 명상음악가 홍순지 씨와 불국사 오어사합창단의 찬불가공연에 이어, 인기가수 배일호, 현숙, 김의영, 박서진, 별사랑 등이 출연해 참석한 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명승' 쌍계사 개산 1300주년 대축전 개최

10월 17~23일 경내 일원서
명승 지정 법회 · 세미나 등



하동 쌍계사가 개산 1300주년 기념 대축전의 일환으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명승 신규지정 기념 법회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월 17~23일까지 화엄전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 고산 화상 약찬가 독송기도가 봉행됐으며 18일~20일에는 쌍계사 팔영루에서 대강백 덕민 스님의 쌍계사 중창기 및 주련 특강이 열렸다. 10월 20일에는 예술관 대강당에서 쌍계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기념 법회와 '쌍계사, 청학동-우리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기념법회에서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쌍계사와 지리산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후대에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생명나눔문화 '무등대회' 열어

베트남 · 캄보이다 · 스리랑카
이주민과 소통 시간 가져



광주 생명나눔문화(대표 도제, 보은사 주지)는 10월 22일 더불어 락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오지게 속 시원한 무등대회' 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과 마음속 답답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제 스님은 "평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차별과 부당한 근로조건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 이주여성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이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조언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스리랑카 라시가, 캄보디아 박미향, 베트남 하오 씨가 자신들의 사연과 고민 등을 이야기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의 언어 교육기관 설립 필요도 제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지막에 이주민 인권선언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파라미타, 제4회 탁발 재현 문화 행사

10월 21일, 광주 양동시장서
행사 수익금, 장학금으로 사용



지역 청소년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스님들이 탁발에 나섰다.

(사)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소운, 광주 관음사 주지)는 10월 21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제4회 전통탁발 재현 문화행사' 를 개최했다.

2023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일환으로 진행한 이날 탁발행사는 (사)날마다 좋은날,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백양사신도회, 전통탁발보존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나주 녹야원 효공 스님, 소원정사 도계 스님, 소운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찰 주지 스님과 김대원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용목 양동시장 상인회장, 강윤구 광주전남포교사단장과 포교사, 이현만 운전불자회장과 회원들, 불교종립 정광고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조선대학교 풍물패를 선두로 정광고 학생들의 만장기, 동자승, 탁발스님, 포교사단, 운전불자회 등 150여 명이 뒤따르면 1km남짓 거리의 양동시장에서 탁발의식을 진행했다.

탁발에 앞서 소운 스님은 "불교의 전통의식이자 숭고한 수행의식인 탁발의 정신을 잘 살려 그 수익을 청소년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모았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전통탁발 재현행사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청소년희망나눔 장학금으로, 김이강 서구청장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성주사 가을 산사음악회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가 클래식과 함께하는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10월 21일 성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성주사 가을 산사음악회는 10월 1일부터 진행된 성주사 산사문화제의 일환이다.

음악회는 가릉빈가 찬불단의 공연과 주지스님 인사, 축사, 김해 신포니에타의 공연, 정행 스님 공연, 대방성당 그라시아 성가대의 공연, 가수 임지훈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대방성당 성가대는 지난해에 이어 종교를 초월한 화합과 소통의 무대를 선보였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사회가 화합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의 세계로 바뀌지길 서원한다"며 "이 순간 화엄의 꽃이 피고 불보살의 가피가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산청 덕산사 대웅전 중창불사 기공식



산청 덕산사(주지 동조)가 10월 21일 대웅전 예정부지 앞에서 대웅전 중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덕산사 주지 동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덕산사는 서기 657년 원효 성사께서 덕산사 가람을 창건하신 이래 천년이 넘는 유구한 세월 동안 면면히 우리 삶에 바른 안목을 제시하며 풍성한 정신문화를 이끌어왔다"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의 향기가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는 대웅전 불사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보 233-1호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불전으로 기공식을 마친 덕산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한식복구조로 면적 85.5m, 다포식 팔작지붕 형식으로 건립된다. 2024년 4월 완공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영산재보존회, 위안부 등 위령영산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의 영령을 천도하는 위령재가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는 10월 25일 광주 법륜사 설법전에서 '제5회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위령 영산재' 를 봉행했다. 위령재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광주영산재보존회 30여 명의 스님들이 참여해 시련을 시작으로 신중작법, 상주권공, 작법무, 축원, 시식 등을 진행했다.

월인 스님은 "아픈 역사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강제 동원된 위안부와 징용자들의 명예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남사 6차 금강경 독송 정진법회 입재



행복도량 울산 해남사(주지 혜원)가 원 성취를 위한 6차 금강경 독송 정진대법회에 입재했다.

10월 24일 해남사 설법보전에서 입재한 금강경 독송 정진 대법회는 11월 14일까지 21일간 이어진다.

매일 오전 8~12시, 오후 2~4시, 저녁 7~9시까지 하루 3차례 금강경을 21독 총 441편의 금강경을 독송하게 된다.

주지 혜원 스님은 "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발심을 통해서 금강경의 말씀이 귀에 와닿고 금강경의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며 "모든 인연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향하고 성불하는 원을 성취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원 성취이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